

다산포럼

통일을 잇자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며칠 전 인천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서해 5도에서 주민 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선단을 이뤄 꽃게 어장을 씩씩이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어선이 우리 어선에 비해 낡은 것들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최신식 중국 배들이 출현해서 우리 어선을 압도하고, 더구나 쌍끌이 저인망으로 바다 밑을 아예 훑어 버리기 때문에 해조류도 자라지 못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죽은 바다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아예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 측에 약간의 입어(入漁)만 받고 어장을 내주는 형편이라 하고, 한국 해경은 중국 배들의 불법 조업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쫓아내

기는커녕 그냥 어민들에게 피하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측과 중국 선박의 조업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하거나, 북한 측에 첨단 어선을 지원해 주고 북한이 잡은 고기들을 한국 측이 사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라고 했다. 이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아들 어민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다. 당장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서 해양 주권도 지키지 못하고 어민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보·국방만은 제대로 하는 세력인 것처럼 하는데 참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평생 여당만 찍어 온 접경지대 주민들에게 '국가 부재'의 현실은 세월호 유족들보다 더하지 않았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원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과 모든 경제교류가 막힌 후, 남북한은 양쪽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였다.

중국의 기술과 산업경쟁력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이제 중국은 지난 100여 년의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대국의 길로 나선다. 그런데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의 수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

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생각해 보면 '냉전의 섬' 남한과 체제의 생존에 급급한 북한이 더 발전된 나라가 되기는커녕 별개의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그간 걸어온 경로 위에서 각자의 미래를 구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대국화, 미국의 미사일 배치 등 큰 이슈가 마구 다가오는 이 국면에서 남북한은 언제까지 종속변수로 남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는 분단국가가 아닌 그냥 인접한 별개의 주권국가라면 자기 앞바다가 유린되는 것을 이렇게 두고만 볼까? 어떤 형태로든 공동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즉 남북한의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은 정상국가들의 그것보다도 못하다. 분단은 확실히 마이너스의 역사다. 그렇다면 남북한 보통의 생활인들에게는 소모적 적대의 청산, 즉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수립, 공동이익 추구 및 평화체제 수립이 당무론적인 통일보다는 훨씬 더 절실하다.

북한붕괴론을 암암리에 깔고 있는 이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나, 반외세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남한 통일운동 진영의 대안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진다. 북한이 아

무리 '우리 민족끼리'라고 외쳐도, 한국 청년들 중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체주의 북한, 그리고 경쟁과 세습의 '지옥'(헬조선)으로 변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론이나 민족주의 담론은 어떤 호소력도 갖지 못한다.

시선을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돌리면 어떨까? 한국이 기여할 점들이 많다. 중국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 치유의 선례를 가르쳐 주고, 일본에는 동아시아 과거 청산을 통한 화해 작업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면서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위치에 있다. 그러자면 남한 집권세력은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속 좁은 행동을 그만두고 한국을 좋은 국가로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 통일' 외친다고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민족국가가 수립되면 남북한 인민들이 모두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다.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한반도가 기여할 몫을 생각하면서, 남북한이 자기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이라도 제대로 보장하는 국가다운 국가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정촌 특·특

지금 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임 후 성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에 매달려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부족한 공부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쌓은 추억일 수도 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노는 것'이라면 그마저도 후회가 없을 만큼 신나게 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목표를 이뤄냈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짜 꿈을 목표로 정했다고 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강하다.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의 꿈이 '공무원'이라며 학원에 다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어릴 적 '공무원'이 꿈이라고 말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친구 대다수가 공무원이 '꿈'이라고 말한다.

또한, 막상 꿈을 이루지만 가족이 내 곁을 떠났다면 그게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던져본다.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정한다. 자식들이 행복의 기준이 "가족에게 있다"고 말하면, 부모는 행복이 "자식에게 있다"고 믿는다. "항상 일하는 힘들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지금하고 있는 일마저 고맙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우리 부모님처럼 고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행복함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제외하고 말아야겠다.

우리는 부모님께 언제까지 용돈만 받아야 살아갈 수는 없다. 부모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식에게 용돈을 건넬 줄 때 느끼는 행복처럼 이제 우리도 소소한 행복을 차차 배워가야 한다.

나 역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으나 취업 고민을 하는 대학생이다. 비록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덜 버는 것'과 '덜이 버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지금의 학생시절을 감사히 여기고 싶다. 돈을 좇아 선택한 꿈은 행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취업과 대학을 고민하던 고3시절, 그때 담임선생님이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후생아,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많고 네게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금 네게 시간이 아깝지, 돈이 아까운 게 결코 아니다." 나는 선생님께서 한 말에 사람들이 대학을 간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행복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생, 취업난에 울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제도 행복했다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려고 성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했다는지도 모른다. 주변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가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찾는 힘들테니...

기 고

마을 숲이 자산이다



윤 병 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

인 전남 숲의 공익적 가치를 30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100년 후면 한반도 남녘에서 겨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남부지방뿐 아니라 중부 내륙을 제외한 지역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된다. 이는 위도 25~35도 사이에 해당되는데, 사하라, 아라비아, 파키스탄, 칼리하리사막,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사막, 중국의 화중 및 화남평야 등과 같은 위치다. 수십만 년 전에 사하라 사막은 '나무로 울창한 숲'이었고, 그것은 사하라 차드 호에 퇴적된 꽃가루와 기슭에 남아있는 물 늪이 흔적 조사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숲은 사람과 함께하는 생명의 땅을 지키는 보물이다.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은 바로 '숲'이다. 숲은 대부분 지형에 따라 각자 형상이 달라 원형이나 정방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성돼 있다. 이런 숲은 '보기 위한 숲'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숲'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숲이 만들어준 그늘에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고, 휴식을 취하던 곳, 그러면서 땀을 얻고, 바람을 막고, 기운을 얻는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역사가 있는 마을 숲은 우리 조상의 삶과 문화, 정신이 깃들여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요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같은 숲을

'마을 숲'이라고 부른다. 동구나무, 당나무, 성황당, 당산나무도 이러한 숲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어릴 적 시골 당산나무 아래에서 숭배할 하며 스스럼없이 나무와 어울렸던 당시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철모르고 기여왔던 고향의 당산나무가 지금도 기억난다.

일본 미에자키(宮崎)현 아야정(綾町)의 숲은 귀농과 귀촌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활엽수림'과 '좋은 물'이라는 장점을 철저히 살려 벌채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에 성공한 마을이다. 그 결과 1985년에는 환경청에 의해 일본의 '유명 숲 백선'에 뽑혔고, 1995년에는 국토청에서 물의 고향에 뽑혔다. 이처럼 숲은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주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시골의 마을 숲도 상품'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숲을 매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한국관 흑림(黑林)이라 불리는 축령산처럼 전남의 마을 숲들이 전국 민으로부터 각광을 받았으면 한다. 전남도는 축령산 편백 숲을 모티브로 한 힐링 음식을 개발해 중장기계획으로 산림치유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필자는 장성군 삼섬면 산림치유마을에서 '인삼 새싹 삼채비빔밥', '삼채떡갈비',

'산나물비빔밥' 등을 함께 시식하며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축령산 편백 숲 치유마을 거리 시식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새로운 소득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는 마을주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다.

마을 숲의 뿌리는 '마을공동체'에 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든 곳이기도 오래전부터 마을 숲을 가꾸는데 정성을 쏟아왔다. 조상들은 숲을 마을을 자산으로 지켜왔던 것이다. 마을의 제(祭), 전통놀이, 문화행사, 보건활동 등을 통해 녹색·생태관광의 장, 숲 체험의 장, 역사계승의 장이었다.

마을 숲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하다.' 바라보는 숲'보다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 숲정비를 통해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쉬어가는 쉼터가 되고 마을마다 남아있는 마을 공간에 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산물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감동적인 서비스를 덧붙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그 전제는 물론 마을 숲이다. 이것이 민선 6기 전남도의 브랜드사업인 '숲속의 전남'이 지향하는 그림이다.

社 說

학생들 해양 실습선 안전관리 엉망이라니

수백 명의 학생(실습생)들을 싣고 매년 수십일 동안 국내·외 항해를 하는 목포해양대 실습선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4일 해양대 실습선에 승선한 목포해양대 3학년 A(24)씨가 실종된 후 나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고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실습선에 설치된 6대의 CCTV는 모두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학마저도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고 후 CCTV만 정상이었다면 아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지 짚혀도 나온다. 만약 선상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상태를 늘 확인했다면 학생이 바다에 빠진 후 바로 구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CCTV가 정확히 언제 작동을 멈췄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안전의식이라면 언제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

게다가 목포해양대 실습선은 전남도 교육청의 선상무지개학교 선박으로 이용되고 있어 더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고등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싣고 매년 70여 일간의 항해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7월 전남 지역 중학교 2학년 209명과 교원 33명이 실습선을 나눠 타고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다. 전남도 교육청은 내내에도 이 행사를 열기로 하고 12억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처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 관련 당국은 전국 해양대 대학과 고교 실습선에 대한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대학을 역시 선상 안전장비 작동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불행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배려하는 교통문화' 광주에서 전국으로

배려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다. 길거리 교통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만 한다면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교통사고도 또한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대형차는 소형차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됐다.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광주지역연합회는 엇그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의 하나다.

이 운동은 광주를 발원지로 전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었는데 왜 하필 광주에서 시작됐을까. 선포식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장관의 대회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 결국 광주에서 이러한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광주의 교통문화가 그만큼 머지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제 수년간 계속되어 온 광주의 불명예를 스스로 씻겨내야 한다. 이는 광주 시민이 광주시·광주교육청과 함께 범시민 참여형 문화운동으로 'SOS'(가치해요, 오늘부터, 서로 배려를)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배려 교통문화는 어렵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지키면 된다. 운전자를 배려하는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의 하나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의 하나다.

배려란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던 바를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때 편안함은 물론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자.

無 等 鼓

"광석인 왜 이렇게 일찍 죽었대니? 우리 광석이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하자." 지난 2000년 개봉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북한군 오경필 중사(송강호 역)의 대사다. 총부리를 겨냥하 하는 서로의 입장에서 노래는 이들의 경계를 허무는 공통분모가 된다.

경북 경주에 문을 연 '한국 대중음악 박물관' 2층 대중음악 100년사(史) 관내에는 '먼저 떠나 더욱 그리운 가객들' 코너가 있다. 이 코너에는 배호(1942~1971), 김정호(1952~1985), 김현식(1958~1990), 김광석(1964~1996) 등

의 음반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남기고 일찍 떠났기에 더욱 그리움을 안겨 주는 가수들이다.

이들 가운데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정호(본명 조용호)는 광주 출신의 장, 역사계승의 장이었다. 마을 숲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하다.' 바라보는 숲'보다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 숲정비를 통해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쉬어가는 쉼터가 되고 마을마다 남아있는 마을 공간에 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산물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감동적인 서비스를 덧붙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그 전제는 물론 마을 숲이다. 이것이 민선 6기 전남도의 브랜드사업인 '숲속의 전남'이 지향하는 그림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대중가요'(신성원 지음)에는 김정호의 무명 시절 일화가 짧게 묘사돼 있다. 1970년대 그는 매일 명동의 음악감상실에서 출연료를 주지 않는데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임창제·이수영이 '어니언스'를 결성하자 '사랑의 진실' '작은 새' '저 별과 달은' 등을 써 주며 싱어송라이터로 인정을 받았다. 이어 1974년부터 솔로로 나서 우수에 것은 '이름 모를 소녀' '하얀 나비'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나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그가 타계한 지 꼭 30년이 되는 올해 담양에 노래비가 세워져 오는 8일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실물 크기 청동 인물상도 세워졌으며 탐방객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히트곡이 흘러나오는 음향시스템도 구비했다. 그는 깎아도 노래와 함께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음~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사들여도/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나비’)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8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